

시론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에 의한 퇴진이다



오수열

조선대학교 명예교수·광주유학대학 학장

12월3일 자정 무렵, 깊은 잠에 빠져 있는 필자에게 둘째 아들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받아보니 “윤석열이 미쳐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라는 내용이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나의 첫 응답은 너무나 담담하게 “국회에서 해제 요구하면 된다.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어떻게 공금증이 발동하여 거실의 TV를 켜더니 경찰들이 국회 정문을 폐쇄하는 모습과 완전무장한 비상계엄군이 국회 본관으로 진입하기 위해 창문을 깨트리는 모습이 방영되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5·16, 12·12, 5·18을 지켜보면서 살아온 나의 눈에 비친 경찰, 특히 비상계엄군의 모습에서 전혀 ‘비상계엄군’ 같은 ‘비상함’과 ‘살기등등한 긴박함’ 같은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상부의 명령에 의해 억지로 끌려나온’ 모습이거나 심지어는 ‘무엇을 위해 나온 것인지 몰라도 모른채’ 자다가 동원된 것 같은 맥 빠진 모습 속에 오히려 그들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훨씬 기세등등하게 느껴졌다.

어쨌든 21세기 한국판 헤르닝으로 기록될 비상계엄은 불과 2시간30분 만에 국회의장이

주재한 국회 본회의에서 ‘해제요구결의안’이 통과되고 ‘계엄군은 국회에서 즉각 철수해 달라’는 의장의 말 한마디에 계엄군이 마치 썰물 빠지듯 철수함으로써 종료되었다.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우리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는 이 사태를 어떻게 정리하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세우느냐 하는 것인데 이를 두고 여야 간에 입장차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며 대통령이 자신의 진퇴를 우리당(국민의힘)에 일임했다는 논리를 내세워 여당과 정부가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내란범’이므로 즉각 탄핵하고 구속·수사해야 하며 법률적 절차에 의해 국정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으며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여당의 주장은 전혀 사리(事理)에 맞지 않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본다. 첫째, 이번 사태가 군(軍)을 동원해 헌정질서를 무력화시키려 한 ‘정변’인 이상 이는 ‘내란죄’가 분명하며,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내란죄의 경우 즉각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구속·수감해야 한다고 본다. 자진 출두한 하수인 김용현 국방장관은 구속·수감하면서 명령권자인 대통령은 그대로 두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에 위배되는 것이다.

둘째, 한덕수 총리 역시 대통령의 권한을 대항할 자격이 있는지 따져야 하며 국무회의에서의 발언과 처사에 따라 그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대통령의 권한은 마음대로 누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가 법적으로 ‘유고’ 또는 ‘사고’에 처해야 순위에 따라 직무가 대행될 수 있는 것이다. 한동훈 대표의 담화를 들으면서 명색이 법을 공부해 검사를 했다는 사람의 발상으로는 믿기 어려웠다.

넷째, 오랫동안 정치학을 공부하고 가르쳐온 필자의 생각으로는 행정부를 구성하는 총리와 각부 장관 대부분이 계엄령의 선포를 결정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그 ‘정변’이 실패한 이상 행정부의 권한은 정치적으로 끝났다고 봐야 한다. 이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모든 권력을 통제·행사하는 것이 오히려 순리가 아닐까 싶다.

예나하면 정치권력의 행사에는 합법성(合法性)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정당성(正當性)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윤석열과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행정부 구성원은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민생경제가 어렵다는 소시민들의 한숨소리가 그치지 않는 연말에 나뉘는 정변을 일으켜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고 경제를 혼란스럽게 만든 윤석열 일당을 일벌백계하는 것만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다시 굳건히 세우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이자 사명이라고 하겠다.

社說

대한민국 어둠 뚫고 빛 밝힌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광주시청 행정동 앞 잔디광장에 한강의 노벨상 수상을 축하하는 조형물이 점등됐다. 높이 12m, 길이 49m 크기의 아치형 구조인 ‘빛고을무지개’에 발광다이오드(LED)로 조명을 달고, 전면부에는 기념 포토존도 꾸몄다.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 표지를 형상화한 시설물이 눈길을 끈다. 2025년 1월 31일까지 불을 밝힐 계획으로 시민 누구나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소설가 한강이 스웨덴 스톡홀름의 랜드마크인 콘서트홀에서 칼 구스타프 16세 국왕으로부터 2024 노벨문학상 메달과 증서를 수여받았다. 대한민국 최초이며, 아시아권 여성으로도 처음이다. 선정 기관인 한림원은 작품 세계에 대해 “궁극적으로는 진실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벨재단은 “역사적 트라우마를 배경으로 인간의 내약함을 심오하게 탐구했다”고 치켜세웠다. 한강은 수상 소감에서 “문학작품을 읽고 쓰는 일은 필연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

들은 세계적인 문학가 반열에 우뚝 서는 순간을 지켜봤다.

깊은 절망과 어둠 속에서 잔잔한 위로와 감동을 전했다. 5·18민주화운동의 도시 광주를 재차 각인시켰고,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인 12·3 비상계엄의 부당함을 알렸다.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에 이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였다. 지금, 광주를 비롯해 전국에서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이 들불로 번지고 있다. 중무장한 계엄 세력에는 몸모로 저항해 가깝스로 시수한 민주주의는 대통령의 탄핵, 책임자 처벌로 완성된다는 것이다. 지역 사회단체도 총결집, 매일 규탄 집회를 이어가는 등 정권 퇴진을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다. 엄중한 비상 시국이다. 시민들이 마음껏 환호하지 못하는 이유다.

‘친애하는(dear) 한강’이 호명됐다. 모차르트의 행진곡이 울려 퍼지자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가 블루카펫을 밟고 나타났다. 반쯤은 폭력과 억압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희망의 빛으로 다가오고 있다.

다문화학생 증가 전남 맞춤형 교육 지원 필요하다

다문화사회로 변화 속에서 체계적인 교육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청소년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 학생은 해마다 가파른 증가 추세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총 학생수는 19만425명이며 이중 다문화학생은 1만2천236명(6.34%)을 차지했다. 이는 전국 최고치로 전년 대비 620명이 늘어 증가율은 5.34%를 기록했다. 2022년은 1만1천367명, 2023년 1만1천616명이며, 각각 3.45%(174명), 4.56%(249명)였다.

부모 출신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6천77명(49.66%)으로 절반에 달했다. 이어 필리핀 1천714명(14.01%), 중국 1천665명(13.85%), 캄보디아 1천15명(8.3%) 순이었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을 포기하거나 학교생활 부적응, 집단 따돌림, 정체성 혼란 등의 여러 문제를 처해있는 실정이다. 폭넓게 포용하고 다문화 준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모두의 노력이요

구된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을 막을 대안 중 하나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 제반 여건을 구축해야 한다. 전남교육청은 기초학력 지도,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 교육 등 3트랙으로 운영되는 교육 지원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

전남도 마찬가지로 다문화학생은 점점 더 많아지고 이주 배경 또한 더 다양해질 것이다.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보다 부모와 함께 중도입국한 청소년들은 특히 언어·문화 적응의 어려움이 크다. 세분화된 맞춤 정책을 선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중언어·문화를 아는 정체성은 경쟁력이 될 수 있다. 글로벌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할 때다. 우리 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성숙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부족하다. 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문화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전남의 소중한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 도교육청의 역할 역시 막중하다고 할 것이다.

의료칼럼



곽희호

목표치연안방병원장

갑작스레 얼굴이 비뚤어지는 ‘안면신경 마비’

추운 날씨에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눈이나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며 얼굴이 비뚤어지는 환자들이 있다. 이 증상은 ‘안면신경 마비’, 한의학에서는 ‘구안와사(口眼歪斜)’라고 부르는 질환으로 겨울철에 호발한다.

안면신경 마비는 뇌신경의 7번째에 해당하는 안면신경에 염증이 발생하여 신경섬유가 압박되고 얼굴표정근육이 굳어 안면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갑작스런 한쪽 안면부의 문제는 중추성인 뇌졸중과 말초성인 안면신경 마비를 감별해야 한다. 중추성의 문제가 있으면 안면부 마비가 심하지는 않아 미약하게 이마주름을 짓고 눈을 감을 수가 있다. 하지만 뇌의 병변이기 때문에 반신마비나 실어증을 동반할 수 있다. 반면에 말초성 안면신경 마비는 얼굴이 굳어 움직임이 불가능한 상태를 보인다. 이번 칼럼에서는 말초성 안면신경 마비를 다루기로 한다.

말초성 안면신경 마비는 한쪽 눈과 입의 움직임이 마비되고 이마주름을 만들 수가 없다. 이로 인해 눈물이 계속 나오거나 음식을 흘리게 된다. 증상이 심하면 두통, 어지러움을 동반할 수 있다.

안면신경 마비의 진단은 문진, 안면 신경전도 검사를 활용한다. 환자의 안면근육 마비 상태를 진찰하고 말초성의 문제로 확인되면 안면 신경전도 검사를 시행하여 신경이 어느정도 기능하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신경전도검사 결과가 낮을 수록 병태가 심한 상태이다.

안면신경 마비는 증상이 발생하지 72시간 내로 초기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3개월의 치료기간이 필요한데 초기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면근육의 기능이 떨어지는 후유증이 유발될 수 있다.

신경의 문제는 발병 후 1-2주 동안은 악화되는 특성이 있어 초기 치료를 받더라도 즉각적인 호전도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초기치료를 시행해야 예후가 양호해진다.

안면신경 마비의 치료에는 한방·양방 협진치료가 효과적이다. 안면신경의 바이러스와 염증을 억제하기 위해 증상이 악화되는 초기 1-2주에는 약물치료로 스테로이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한다.

약물치료와 함께 침구치료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침구치료를 마비된 안면근육인

안륜근, 구륜근 등을 직접적으로 풀어주고, 안면신경의 염증을 줄여 근본적인 치료를 가능케한다. 귓구멍에서 바로 앞쪽에 움푹 파인 구멍으로 입을 열고 닫을 때 오른쪽은 부위인 하관(下關)혈, 엄지와 검지 손가락의 뿌리가 만나는 오목한 지점인 함곡(含谷)혈 등이 활용된다.

한약치료 또한 안면신경 마비에 근거있는 치료가 된다. 시령탕(柴苓湯)은 약물치료인 스테로이드에 비하여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추운 날씨에 발생한 안면신경 마비에는 건정산(牽正散)을 활용한다.

안면신경 마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력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질환은 특별한 발병원인 없이 면역력이 저하되는 것이 문제이므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멀리해야 한다. 특히 대상포진 바이러스도 안면신경 마비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면신경 마비 환자의 생활관리로는 인공 눈물, 핫팩 등이 효과적이다. 눈이 감기지 않아 안구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어 인공눈물을 점안하거나 수면 시 안대를 사용해 눈을 보호해줘야 한다. 그리고 굳은 안면근육을 풀기 위해서 부드럽게 안면근육을 마사지해주거나 핫팩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업무와 스트레스에 힘들더라도 항상 밝고 고운 얼굴을 위해 면역력을 잘 관리하길 바란다.

독자투고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이 내 삶에 침투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이제 우리는 더는 개인 SNS에조차도 내 사진을 편하게 게시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유명 연예인뿐만 아니라 정치인, 심지어는 일반 시민들도 피해를 호소하며 불안에 떨고 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실제처럼 보이는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술로 처음에는 영화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창의적인 목적으로 활용됐지만, 최근 들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몇 장의 사진만으로 얼굴, 표정, 음성을 합성해 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작된 영상으로 보이스피싱에 악용하거나 음란물을 제작하고 가족과 지인으로서

여금전을 요구하는 것이다.

경찰이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1천94건을 접수·수사해 피의자 573명을 검거했는데 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 573명 중 10대가 46명(80.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은 94명(16.4%)이었다. 특히 청소년들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우려를 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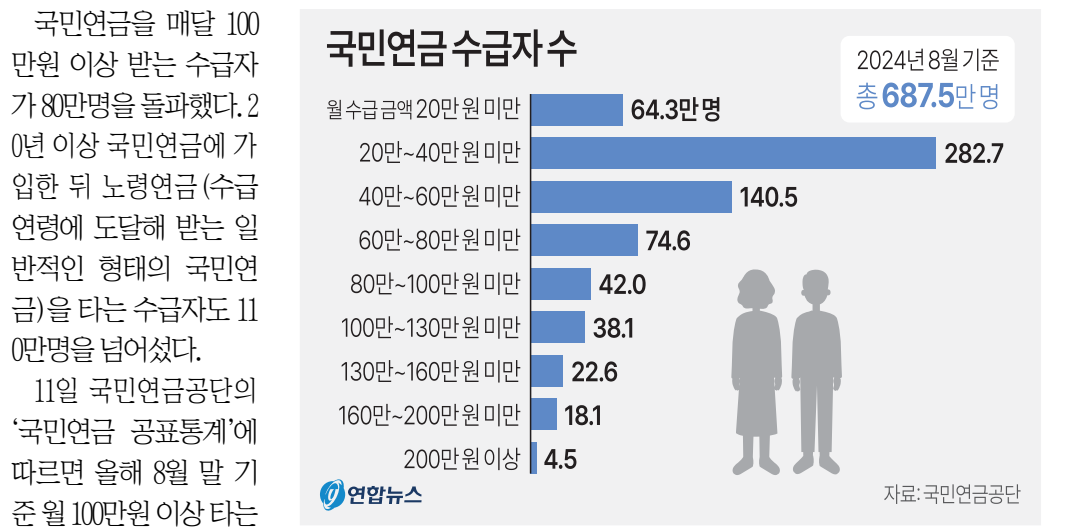
딥페이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온라인에서는 각종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주의해야 하며 SNS 계정은 비공개로 설정하고 모르는 사람과의 접촉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파일을 열람할 때는 주의해야 하고 강력한 비밀번호를 설정해 안전한 인터넷 사용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겠다.

무엇보다 피의자들이 딥페이크 범죄를 가법게 여기지 않도록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명예 훼손과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엄격한 법률을 시행해 방지해야 하며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딥페이크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한 후 정보 출처를 확인하고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교육이 강화된다면 신중 범죄 예방률이 현저히 높아질 것이라 예상된다.

마치 양말의 겹과도 같은 인공지능(AI)의 발전, 이러한 예방법과 대처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디지털 사회 신뢰뿐만 아니라 내 옆의 이웃을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오길 기대한다. <김현아·보성경찰서 경무계 행정관>

그래픽 뉴스

월 100만원 이상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 80만명 돌파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80만명을 돌파했다.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노령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수급자도 110만명을 넘어섰다.

11월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 타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88만3천61명으로 80만명을 훌쩍 넘었다. 성별로는 남자 78만9천345명, 여자 4만4천306명으로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 수급자 82만3천54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족연금 7천691명, 장애연금 2천416명 등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를 금액별로 나눠보면 월 100만~130만원 미만 37만1천890명, 130만~160만원 미만 22만5천771명, 160만~200만원 미만 18만1천276명이다.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도 4만4천607명에 이르렀다. 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의 연금액은 월 289만3천550원이다. 평균 수급액은 노령연금은 월 66만3천382원, 장애연금 월 52만5천192원, 유족연금 월 36만333원이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8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사 업 본 부 650-2007	입부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 무 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고시사항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10(가)10(가)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0원